

野 “땅 투기 등 검증… 추가 낙마 이끌것” 與 “무차별 폭로 단호 대응… 정면 돌파”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도덕성 등 날선 공방 예고

국회가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일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의혹제기는 근거 없는 폭로정치’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두 내정자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과 관련돼 있다며 철저한 미세검증으로 ‘제2의 낙마’를 보여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정병국 내정자=16일 현재까지 정 내정자에 대해서는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 ▲기획부동산을 통해 양평군 임야를 취득했다는 의혹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표절 ▲부당 소득공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14일 “정 내정자의 부인 이모씨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정 내정자가 여러 공유자와 함께 개군면 토지를 구입한 후 인근 토지 개발로 땅값이 4~5배 올랐다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밤이 바뀌어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한 2004년 뒤늦게登記 이전을 하려다 보니 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며 기획부동산 의혹에 대해

서는 “참우랜랜드’라는, 동호인끼리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6일 정 내정자의 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3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 내정자는 2004년 성균관대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정모씨의 1998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표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종경 내정자=이날까지 자녀

동생금 국비지원 과정에서의 특혜,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최 내정자가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현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한국국제학교가 있었음에도 학비가 5배 높은 마닐라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 국고 2700여만원(2만4237달러)을 지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 내정자는 이에 대해 “필리핀 재외한국학교는 아들의 입학시점 이후에 설립됐다”며 “학비 지원은 공무원 상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또 최 내정자의 부인 김모씨가 1994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오피스텔의 면적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고 1988년 9월 부유공단이 조성될 예정이던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임야를 사서 4년 만에 6배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내정자는 이에 대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먼 친척이 관리해와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금호리 땅은 처가의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배우자의 언니가 함께 구입한 것으로, 개발계획을 전혀 모르고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국비지원 과정에서 특혜,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최 내정자가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현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한국국제학교가 있었음에도 학비가 5배 높은 마닐라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 국고 2700여만원(2만4237달러)을 지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 내정자는 이에 대해 “필리핀 재외한국학교는 아들의 입학시점 이후에 설립됐다”며 “학비 지원은 공무원 상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또 최 내정자의 부인 김모씨가 1994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오피스텔의 면적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고 1988년 9월 부유공단이 조성될 예정이던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임야를 사서 4년 만에 6배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내정자는 이에 대해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먼 친척이 관리해와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금호리 땅은 처가의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배우자의 언니가 함께 구입한 것으로, 개발계획을 전혀 모르고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국회 문방위 회의실에서 사무처 당직자가 청문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일뉴스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姜 드라이브’

임태희 방문·호남향우회 신년회서 강력 주장

부처 장관 만나 상품거래소·포사격장 논의도

강운태 광주시장이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를 위해 민주당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가 하면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부처 장관들과 잇달아 회동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3일 민주당이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 손학규 대표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손 대표에게 “민주당의 입장이 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지역과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시장은 손 대표에게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그렇게 챙겨 왔었나”며 섭섭한 심경과 함께 광주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준비 상황을 설명했으며 이에 손 대표는 “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겠으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또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호남향우회

신년회에서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광주·전남권 유치를 강력하게 주장,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강 시장은 “민주당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주장한다는 말들이 있다”고 잡지 한 자락을 깐 뒤 “충청권은 세종시는 물론 첨단복합의료단지 등 여러 가지 정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는 광주·전남권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 호남 향우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강 시장은 이어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 등 지

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대해 일 입장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하지만,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 등이 있다는 점에서 자세한 논의의 내용을 지금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시장은 지난 13일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상품거래소의 광주 유치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상품거래소 설립 문제를 본격 검토할 것이며 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시장은 15일에도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만나 광주·전남 포사격장 이전 문제와 광주공항 군비행장 이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강 시장과 김 장관은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어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지역 현안이 많지만 주위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아 고민”이라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 바탕으로 발로 뛰면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불모지’ 호남 민심잡기 나선 한나라

26일 광주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한나라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1년 앞두고 ‘불모지’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오는 26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서는 등 ‘호남 보듬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현장회의는 19일 대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호남권 모든 당협위원장들이 참

석해 호남권 민심을 여과 없이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회의는 지난달 충청·호남 뉴 지방지 최고위원으로 뽑힌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박성호 전 대전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100일 민생 대장정’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거론하며

한나라당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 지역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대전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아 최고위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대전과 광주를 연이어 찾은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호남 및 충청 민심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이 이 같은 호남·충청 민심 잡기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호남·충청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미·한-EU FTA 특위 구성결의안’ 발의

민주 박주선 의원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및 한·EU(유럽연합) FTA 체결 대책특위 구성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명으로 국회 특위를 구성, 6개월간 각계각층의 의

견을 수렴해 한미FTA 재협상과 한·EU FTA의 분야별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피해분야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위해서라도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며 “특위는 국내 산업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FTA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참여당 ‘친노 깃발’ 1년 도전과 한계

제도권 정당 진입 성공… 차별성 부각 미흡

당 지지율을 확대, 정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시에 29명의 광역·기초의원도 배출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에서 치러지는 4·27 재보선에서 반드시 원내에 진입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참여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참여당이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탄생했다는 점과 ‘노무현 정신’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 친노세력은 민주당에 잔류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로운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만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입지를 갖고 있지만 당세가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해 ‘유시민당’으로 평가를 받는 등 정당으로서 이미지는 아직도 확고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지각변동 과정에서 다른 당과 합쳐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영,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강사진
언어(최복수)의 2명
영어(신경찬)의 2명
수학(주석진)의 2명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062) 672-0483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062) 672-0483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1월초 개강!! **수시등록가능**
(주/주말반 전액석 있음)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2개월 15만원
www.egosi.co.kr [1차 : 5월 29일 시험대비]
062)226-5050 으로 신청바람!!

★농업인·축산인·영양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충철경영학박사, 김세미농학석사, 윤종하(전)품관원,
초대농협사협회장, 손승운, 송상호, 전정훈교수진]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접농업전문원 0226-5050
위치 : 전남여고 건너편 학원가길구, 광주교시학원건물1층(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쪽)

손영호 박사의 로벤테라피 제품으로 관리하는 전문 관리샵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이런분께
권합니다!

✓오십견 ✓엘보 ✓관절염
✓디스크 ✓여드름 ✓간질·우울증
✓CT, MRI 이상없는데 고통을 느끼시는 분

손영호 의학박사가 개발한 로벤테라피란?
여러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천연성분을 가지고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탄생한 제3세대 아로마테라피입니다.
기존의 아로마테라피와는 효과와 용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로벤테라피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여러증상에 오일을 피부에 발라 10여분동안 마사지 하여 통증이나 각종 증상을 없애는 기적의 자연제품으로 현재 전국 많은 병원에서 사용중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속는셈치고 한번 대너가 보십시오.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방문 환영 전화예약하시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 오일을 피부에 발라 20분 맞사지/놀랍고 기적적인 효과/확신이 안가신 분/무료상담, 방문환영
처음엔 의심하던 고객님이 1회관리후 통증이 없어지는 탁월한 변화를 체험하신후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오십니다!!

“로벤케어의 모든 관리는 책임제입니다” **책임제란?** 효과없을시 돈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개설문의 환영 모집지역 : 광주,전남북지역 **소자본투자/안정된수익**
※ 위의 질병들을 가장 빨리 관리함에 있어서 로벤은 이미 세계최고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8. 신동아 9월호)

닥터손 로벤케어
roben care 상무점
TEL. 062)376-5557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77-3 라인대주 APT 정문앞 2층201호
(지하철 상무역 4번 출구)